

인터뷰

제11회 한국 물류 대상

Korea Logistics Award Ceremony

(사)한국물류협회와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코엑스,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11회 한국물류혁신대회가 지난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성대히 개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 물류협회 단체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류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총회를 비롯, 국내·외 산·학·연·관 최고전문가들의 물류관련 논문과 혁신사례 등을 발표하는 물류혁신 컨퍼런스, 물류부문의 첨단기술 및 설비와 솔루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국제물류산업전이 개최됐다.

한국물류혁신대회 기간 중 17일에는 물류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업체를 발굴해 정부 포상을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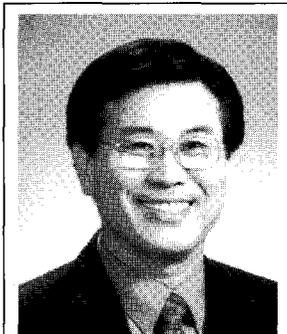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물류협회,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2003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LH홈쇼핑, 한국물류정보통신(주), 범한종합물류(주)가 산업포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10여개 업체가 대통령 표창, 건교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다.

본 고에서는 2003 한국물류대상 수상 업체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고객중심 물류시스템 도입, 물류산업 발전 기여

첨단설비 물류 자동화 이뤘



최영재

LG홈쇼핑(주) 대표이사

물류흐름 관리 및 물류비용 절감에 이바지 한 LG홈쇼핑이 2003년 한국물류대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영재 사장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수상을 계기로 LG홈쇼핑 임직원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1등 홈쇼핑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LG홈쇼핑은 1997년 현재의 최영재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물류서비스 개념을 도입, 택배사와 연계하여 홈쇼핑은 물론 택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홈쇼핑 업계 최초로 통합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조, 유통, 물류업체를 SCM으로 연계하여 물류흐름 관리와 물류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등 물류

혁신을 통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40여년간 소매유통산업에 종사하면서 깨달은 바 물류의 중심은 상품이 아니며 상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소비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는 최영재 사장의 경영 방침은 LG홈쇼핑이 고객을 중심으로 물류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데 기여했다.

1997년 LG홈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내최대 온라인유통(B to C) 홈쇼핑을 운영하면서, 연 100% 이상 증가하는 판매상품의 물동량에 대해 고객만족 물류경영이념을 정립하게 된다.

유통물류시스템을 첨단화하여 고객접점 배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업체와의 물류합리화 체계를 구축했으며 택배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시스템화 함으로써 국내 택배사업 발전 및 물류현대화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인 홈쇼핑사업에서의 핵심 인프라는 물류시스템이라는 확신을 갖고 물류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고객만족 물류개념을 최초로 도입, 물류는 “상품관리+서비스”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LG홈쇼핑은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홈쇼핑의 특성을 감안, 협력업체 지원부서 및



품질관리를 물류본부에 통합하여 총괄 물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업체의 공정지도-품질관리-배송관리를 연동했다.

최영재 사장은 ‘최고품질의 상품을 최상의 서비스로 최단시간 내 배송하는 고객만족 물류경영을 실현함으로써 물류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LG홈쇼핑은 첨단설비에 의한 물류 자동화 기업의 토대를 마련, 총연장 158m의 트롤리 이송시스템 V-라인(Vertical Conveyor-line System)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다.

트롤리(Trolley)에 바코드 라벨을 부착 자동으로 층별/트롤리별 지정, 이송토록하고, 귀금속, 상품포장기(자동포장기, 자동랩핑기), 센터내 작업자용 무선PDA 도입/활용, 택배라벨 전용송장을 최초 개발 하는 등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지속적인 투자로 화물이동 속도를 월등히 향상시켜 다량의 화물을 단 시간에 입출고 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SMS 서비스로 제공하는 배송정보 알리미서비스 등 선진 물류서비스체제를 개발하고 직택배 시스템 구축으로 배송기일을 단축하는 등 물류합리화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물류발전에 선도하고 있다.

최영재 사장은 “최근 홈쇼핑 업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홈쇼핑

업체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LG홈쇼핑은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ERP(전자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LG홈쇼핑은 ERP와 CRM 시스템을 연계 구축, 고객별 배송인력관리를 통해 고객 개인에 대한 1대1 배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으며 SCM(Supply Chain System)에 의해 협력업체와 판매/재고, 발주, 입출고 및 배송정보 공동관리가 가능해 100% 적기배송(On time delivery)을 통한 고객만족 물류혁신을 이뤘다.

LG홈쇼핑은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홈쇼핑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BTV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등 세계 1위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03년 인터넷 쇼핑물업계 최초로 분기 매출 1천억 시대를 달성한 인터넷 쇼핑물 LG이숍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물을 연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미디어 홈쇼핑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LG홈쇼핑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K]

산업포장(한국물류정보통신(주))

물류전문 IT 전문기업, 물류혁신 선도



백 옥 인
한국물류정보통신(주) 대표이사

2003 한국물류대상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한 것과 관련, 백옥인 대표이사는 “물류업무 혁신을 실현하여 물류관련 기업과 국가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동북아물류중심국 실현의지와 최근 화물연대파업 등으로 물류의 중요성과 선진화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물류정보화사업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국물류정보통신(주)은 국가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로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철도화물운송정보시스템, 일반부두정보시스템, 내륙화물기지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종합물류정보시스템 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류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물류정보화 확산과 물류업무 혁신 및 물류비용 절감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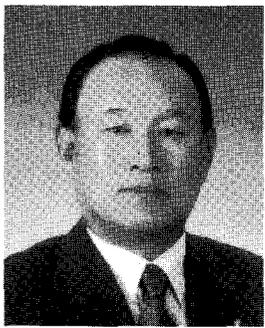
또한 항만·통관·터미널·철도 등 각종 물류 관련 200여종의 전자문서 개발과 EDI(전자문서교환) 서비스를 제공, 물류업무의 표준화 및 절차 간소화, 중복제출 방지 등을 통해 서류감소와 시간절감, 업무효율화 등을 실현해 막대한 물류비 절감을 이뤘다.

이 밖에도 터미널 운영솔루션을 개발,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에 저렴하게 보급함으로써 터미널의 게이트자동화를 실현으로 인원 감축과 비용절감을 가져왔으며, 게이트 출입소요시간과 컨테이너처리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등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업무의 효율화를 실현했다.

“해운물류 분야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더욱 다각화하여 항만 및 터미널을 비롯한 내륙화물기지, 철도, 일반재래부두 등 물류거점시설의 정보화를 통해 하나의 물류네트워크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백옥인 사장은 “특히 터미널운영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물류도탈솔루션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물류기업들의 업무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명실공히 글로벌 물류도탈솔루션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히는 백옥인 사장. 그의 행보와 한국물류정보통신(주)의 발전을 기대한다. ☐

ISO, 6.1그마 구축 통해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여 성 구

범한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국내 유수의 제조, 유통, 물류기업이 참여한 2003 한국물류대상에서 우리회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물류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이를 외부 전문가와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범한 종합물류(주)는 고객사의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3PL을 추진하고 정보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여 독자 시스템인 PANTOS, 보세창고 WMS, e-Tracking 시스템 등의 IT Solution을 개발/구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정보화·공동화·자동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 금번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물류분야에 품질경영시스템(ISO, 6시그마)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표준화/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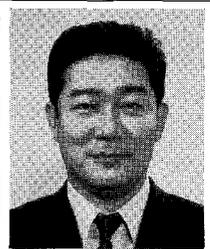
격화된 세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범한종합물류(주)는 1993년부터 시작된 정보전략 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의 장기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02년 11월부터 Global Logistics Network를 지향하는 SCM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인 PNATOS 2000을 구축, 물류정보화에 기여했다. 또한 품질문서(매뉴얼, 절차서, 업무지침서, 표준양식, 업무프로세스) 등을 마련 및 실시하고 Digital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물류업무 표준화 및 규격화에 기여했다.

또한 ‘열린 기업문화 창출’이라는 방침 아래 COMMUNI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본 부간/팀간/본지사간 Co-Working 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사내 물류대학을 운영하고 개인 경력 관리를 실시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문가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구 사장은 “지난 2월 선포한 ‘비전 2010’에 따라 2010년 포워딩부분 매출 2조5천억원, 전세계 100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 물류정보 IT시스템 구축, 물류전문인력 육성을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목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범한종합물류(주)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대통령 표창(웅진코웨이개발(주))



박용선
웅진코웨이개발(주)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웅진코웨이개발(주)은 렌탈 사업을 실시, 신개념의 마케팅 조직을 활성화하여 조직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IMF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다.

웅진코웨이개발은 물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단순 입고/출고 및 재고를 관리하는 창고의 수준에서 메인 물류센터(평균 1,000평)의 운영과 함께 창고(규모: 약 50~60평)를 지역물류센터(규모: 약 100~150평)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입/출고 업무 및 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전산시스템을 과거 Dos용에서 Window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CS Dr. 및 Cody의 PDA 사용, 메인(지역)물류센터에서의 핸드 터미널 사용, DPS(Digital Picking System)를 도입하는 등 선진화된 물류업무를 수행, 물류센터의 작업인원 및 장비 등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전문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현재 웅진코웨이개발은 물류전담 조직 구성 등을 통해 물류 인적자원을 충원하는 한편, PDA 등 모바일 기술의 활용을 통한 물류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정보시스템의 재개발 및 기능 강화, 물류거점의 재편을 통해 공급체계의 안정화 및 물류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엑소후레쉬물류(주))



제한주
엑소후레쉬물류(주) 대표이사

일일배송 생식품 분야물류를 전문으로서비스하는 엑소후레쉬물류(주)는 화주와 화주의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양한 IT 시

스템의 적용을 통한 업무 물류 합리화, 정보화 및 물류업무 개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로 일배 생식품분야에서 공동물류 모델로 출발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경영이념과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냉장물류회사로 발전한다는 비전으로 3PL 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1996년 일일배송 식품물류 및 고객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LIS 물류운영 System 구축을 시작으로 거래선별 납품물량의 정량배송을 위한 DAS/DPS, 서로 다른 온도대의 복합배송 및 배송효율 향상을 위한 Cool Pack System, 정시 수·배송 및 실시간 차량온도 관리를 위한 Web CVO System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했다.

지난 해에는 물류센터 및 생산처의 온도관리 강화를 위한 WRMS, 냉장물류의 온도관리 강화를 위한 보냉 System, 고정배차가 아닌 물량에 따른 일일배차를 위한 TMS를 구축으로 정량·정시·정온 배송 등 냉장식품 공동물류 산업을 선도하고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대통령 표창(엑스로지스(주))



이 현 주
엑스로지스(주) 대표이사

엑스로지스(주)는 SCM상의 Total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물류의 다양한 (diversify) 장점들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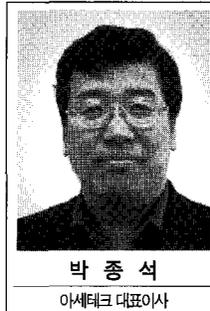
“One Stop Logistics Service”를 제공했다.

유럽시장을 개척하여 유럽 물류의 중심지인 네덜란드에서 수출입통관, 보세운송, 보관까지 포괄적인 One Stop Logistic Service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해외시장에서 지상운송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고객기업의 물류유통분야에서 재포장, 택배, After Service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 사업기회를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위주로 하는 국내물류기업에 모범이 됐다.

특히 물류 전문 업체의 전문 경험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 구조 분석을 통한 개선을 추구하여 각 회사와 그 전략에 맞는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제 3의 이익원이 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물류 환경을 조성, 제공하고 각 기업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roject 및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공, 기업의 마켓 우위를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아세테크)



박 종 석
아세테크 대표이사

아세테크는 1993년 설립한 이래 약 10년간 물류발전을 위해 대학원진학 및 사원의 교육지원, 연수 및 세미나 참가와 해외 우수물류센터의 견학 알선 등으로 국내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세계 최초의 멀티릴레이 DPS방식 시스템 개발 등으로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전자/전기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에 약 160여개 기업에게 공급,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국내외에 약 160여개사의 시스템 구축으로 물류관련 Know-how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아세테크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년, WMS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물류사업의 확장을 위해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확대,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협력사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기억소자 인식시스템(Super ID)를 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동시에 물류기술연구소를 개설하여 한차원 높은 물류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할 계획이다.

대통령표창((주)에프지에프)



최진원
(주)에프지에프 대표이사

(주)에프지에프는 생산과정에서 물류의 전반적인 흐름을 연구하여 각 부문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창출한 후에 물류의 입고, 출고, 반품 등의 부문에서 작업효율을

향상시키는 입고수량 검수기, 반품검사 반자동화 시스템 기기 등을 자체 개발, 생산물류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의 전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공정연구를 통해 적합한 모형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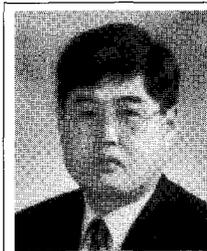
여기에 수작업과 자동화를 적절히 혼합한 제조업 물류부문의 공정효율화와 합리화를 이뤘다.

(주)에프지에프는 스피드 레일을 통한 Hanger 반자동 이동설비를 구축하고 전자저울과 digital 표시기를 결합한 weight를 통해 입고 수량 확인 및 작업속도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입출고 과정에서 DAS(Digital Assorting System), Barcode를 이용한 반품 System을 도입하는 등의 물류효율화로 연 3억원의 절감효과를 이뤘다.

이밖에도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층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업무개선 방식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주)삼영물류)



이상근
(주)삼영물류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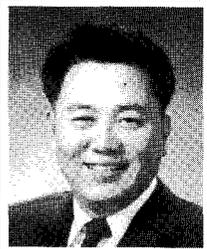
(주)삼영물류는 다양한 선진물류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업체로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위해 물류공동화에 노력해 왔으며, 물류전문인력 교육과

평가체제를 확립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솔빛미디어를 비롯한 7개사를 중심으로 공동물류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량화로 단위당 코스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인 물류인력 양성과 연 2회에 걸친 사업장별 업무평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물류인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체제를 확립하였다. 삼영물류는 DOOR TO DOOR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특송시장 개척에 선구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88년 1월, 국내 특송사업을 위한 특송사업부를 구성, POUCH 배달업체에 의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택배서비스 정착화에 기여했다. 또 3자물류의 공급자로서 (주)진로, 금호타이어, 진도하이리빙, LG유통, 부천물류센터, 월마트 등 기업체의 3자물류의 공급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이행했으며 카고형 차량의 Van형 탑재화를 선도함으로써 현재 자사내 95% 이상의 차량을 탑재화 했다.

삼영물류는 물류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현장중심의 QUICK RESPONSE 조직구조를 이미 도입 운영해 물류선진화에 앞장 서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주)티오피 해운항공



박종만

(주)티오피 해운항공 대표이사

(주)티오피 해운항공은 해외 자카르타 지사와 청도지사를 이용한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여 Global 시대에 맞게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투자로 전문물류인 양

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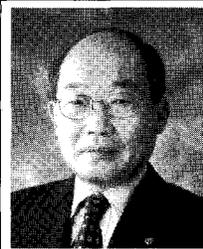
(주)티오피 해운항공 박종만 사장은 1992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5년간 복합운송주선업의 경험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물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화주 입장에서 요구되는 빠르고 정확한 물류정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B/L 체크 및 화물추적 등의 물류정보를 세계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물류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3자 물류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을 더욱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 가격경쟁력을 중요시하는 수출입 업체의 공장 이전 및 다국적 기업의 증가로 인한 3국간 무역이 일반화된 Global 시대에 맞추어 해외지사에 직원을 순환 근무시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물류전문인으로 양성하고 있다.

티오피 해운항공은 1996년에 자본금을 3억원, 2000년에 또 다시 5억원으로 증가하면서 현재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부채율 20% 이하인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 표창(주)유한양행



차중근

(주)유한양행 대표이사

(주)유한양행 차중근 사장은 1998년 한국공인물류관리사회를 창립, 초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폭넓은 인적교류 및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모범적 물류관리자상을 정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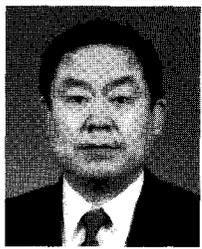
차 사장은 (주)유한양행에 임원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해 오면서 국내 물류 산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내 물류 발전에 공헌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물류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실무 보수 교육과 후배 물류관리사 양성을 위한 수험서 감수, 기업체 물류전문가 양성교육 및 각종 공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제휴, 다양한 세미나 참석 및 서경대학교 물류 대학원 업무 제휴, 기업체 물류관련 컨설팅 수행 등 물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3년 3월에 주식회사 유한양행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배 물류관리사들에게 모범적인 물류관리사상을 정립하였다.

2000년도에 회사에 경영혁신활동을 위해 6시그마를 도입하고, 특히 물류관리 영역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접목시켜 물류종사자에게 물류의식의 변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재고자산 관리의 정확도가 1시그마 수준에서 4.8시그마 수준까지 향상시켜 연간 약 1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어 회사의 기업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교부장관 표창((주)해우종합물류)



김진일
(주)해우종합물류 대표이사

(주)해우종합물류는 국내 최초로 통합면허 (국제복합운송, 수출입통관, 보세운송)를 보유한 업체이다.

지난 20여년간 항공(해상)운송주선업, 보세운송, 통관, 창고,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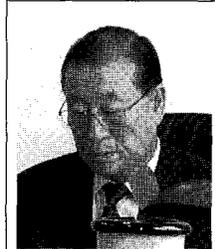
급 업무 등을 통합하는 등 종합물류서비스(항공/선박, 통관, 내륙운송)를 통하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입 화물 운송에 One Stop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Total Logistics의 형태로 대(對)화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자체 개발한 진단 Program인 POD System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운송경로에 관한 사항인 선적 전에서부터 국내 화주의 각 창고 또는 통관 후 운송되는 시점까지 추적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해우종합물류는 수입 항공화물의 초정밀 고가장비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최신형 특수차량 및 저장차를 도입했으며 수출입 항공화물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안의 형태를 Air-Roller로 제작하여 실용신안 특허취득을 했다.

또 ULD(Unit Load Devices)를 이용하여 항공기내의 파렛트를 96", 118" 의 2가지 형태로 규격화 한 결과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간의 왕복 운송을 전담함으로써 항공기내에 화물을 싣는 과정에 효율을 높였다.

건교부장관 표창((주)천안물류)



박상구
(주)천안물류 대표이사

(주)천안물류는 수출입 화물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목표로 20년간 철도 컨테이너 하차장, 물류센터, 통관, 하역, 재고관리, 내륙 운송 등 입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정보인프라 IT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2001년 경부선 천안시 두정역 부근에 자사 부담으로 컨테이너 하차장을 조성해 기존 도로운송만으로 진행되던 중부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수송을 철도 수송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컨테이너 운송형태의 입체적인 조건을 구축했으며 동북아 철도수송 극대화,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철도화물수입 증대와 국내 수출입물류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창고관리 시스템인 CAWMS를 자체 개발하고, 보세운송시스템 내부 인트라넷까지 적은 비용으로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형 물류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 기여했다.

천안물류는 현재 미국 유수 반도체업체의 동북아 물류기지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창고운영시스템을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에 설치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

건교부장관 표창(한국통운(주))



최 승 락
한국통운(주) 대표이사

한국통운(주)은 기존 물류 운송의 노하우와 창고, 포워딩, 용역 등 토탈 물류 서비스를 화주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다양한 물류 시스템의 적용과 개

발로 물류 선진화에 앞장섰다.

유럽지역, 일본 등의 현지실사를 통하여 선진물류의 변화된 System 도입, 물류 운송의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물류 정보 수집 등을 통한 Data 관리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상호 정보의 공유 등으로 물류비용 절감에 헌신적으로 기여했다.

현재 그는 차량기사의 운전수행능력을 잠정적으로 평가하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통해 분기별로 평가하여 포상 및 패널티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 단말기를 연동하여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MPS : Mobile Position System)를 기본으로 각종 Data 수신 및 발신기능으로 제품의 납품시간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용의 원가 절감, 신속한 운송 및 적재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보세창고 면허의 취득 및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 실시로 신고제지, 바스프 등 국내외 업체의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여 보다 효율적인 Forwarding 업무의 수행으로 7%의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매일경제신문사 사장상(한국 O.FA시스템)



손 정 보
한국 O.F.A시스템 대표이사

한국 O.F.A시스템은 물류보관 설비분야의 선진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구축과 업계 유일의 품질시스템의 정착으로 국가산업

의 발전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업체이다.

한국 O.F.A시스템은 창립 이후 5~6년간 계속 기술개발을 위해, 독일 박람회 물류전, 일본 동경 물류전, 독일 박람회 물류전 등의 전시회와 일본물류연수단 참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해외물류시장 동향 파악과 외국제품의 기술 수준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전동식 모빌랙을 도입, 창고공간 활용률을 2~2.5배 증가시켰으며 토지비 및 건축비를 반으로 절감하고 -20℃ 이하의 냉동창고에 설치시 탁월한 보관 및 열효율 향상을 가져와 실용신안과 KT마크(국산신기술)를 획득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 1년간의 연구, 개발로 기존 전동모빌랙과 자동창고시스템을 결합시킨 스택커 크레인형 전동식 모빌랙을 개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뛰어난 물류보관설비로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전동 모빌랙과 더불어 향후 2~3년 내에 1,500억~2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